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친구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엢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피에타(PIETA)

어머니!
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분노가
질레꽃의 가지처럼
고통과 목마름으로 나를 찢고
외면할 수 없는
처음이고 끝인 육체의 깨어짐,
천부(天父)와 맺은 순종(順從)의 시간!
죽음은 무의미하지 않고
새롭게 피어날 썩어짐인 것을!

나는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진실은 지발하고
정의는 왜곡(歪曲)당하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사랑을 아는 이들은 사랑을 나누겠지요
때가 차면,
나의 기도(祈禱)는 심판이 되고
나의 주장은 형벌의 검(劍)인 것을!

그리스도여!
나의 슬픔이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애절함이며,
그대가 알 듯이
나는 사람인 것을
눈물 많은 여인인 것을!
죽음이 새 생명 되고
눈물이 기쁨일 때가 언제이겠소!
피에타!

"가르되 성전을 열고 사후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
제사장들과 시기관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회용하여 가르되 저가 남
은 구원하였도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로다 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 27:40-42)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간 예수의 시체를 안고 있는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녀는 매우 무도 하지 않은 것일까!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이 순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예수를 임태하던 그녀의 송가(頌歌)를 떠올리고 있었을까!



신앙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으시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즉 원죄가 없으시다. 또한 생가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짓는 죄도 없으시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 죄는 무엇인가? 보통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이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창조주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창조주를 모르는 것도 죄다.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환자, 나그네, 약한 자도 사랑하셨다. 심지어는 원수같이 대적하는 자도 사랑하셨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기도를 하셨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끄럽고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신, 즉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 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다. 그래서 나의 죄는 용서되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대신하실 수 없는 것이다. 죄 없으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보자.

(이종대 목사 - 6교구 지도)

생명의 향기, 죽음의 냄새

주님이 행하시는 모으는 선교는 분리라는 비극적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최상의 계시가 인간에게 최고의 적대감을 일으키리라고 경고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송리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극악한 증오를 만난다. 영원한 아들의 오심이 회개하는 신앙과 교만만 불신앙 사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최고의 반향자인 마귀에게서 난 자 사이의 간격을 넓게 벌린다(요 8:42-51). 잔치상이 준비되었지만 손님은 초대를 거절한다. 그물이 끌려 들어왔지만 나뭇 물고기들은 제의된다. 말씀이 뿌러지지만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난다.

바울은 복음이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임을 알았다(고 후 2:16).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이는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들은 들어오지만 부자는 자신의 길을 간다. 회개하는 세리들은 환영받지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리새인들은 제외된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칼을 가져다주려고 오셨다. 그분의 왕국은 궁극적인 주창으로 가족까지도 나누는 것이다. 그 분리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구원이 오지만 이것은 경제 개혁이나 정치 해방 혹은 환경의 청정지킴이 아니라, 길

이로 진리요 생명의인 구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증거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안 된다. 생명의 말씀의 칼날은 예수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상의 소금과 누룩으로서 교회와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지대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빛을 높이 들어야 한다.

(Edmund P. Clowney의 '교회' 중에서)

'교회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얼굴을 이해해야 한다'는 클라우니의 논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아니, 이것은 예수께서 처음부터 선언하신 말씀이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심판의 전조이기도 하며, 생명을 가져다주지만 영원한 멸망을 핑계지 못하게 하는 엄격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진실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를 향해 거칠게 항거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책임이며,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그들의 몫이다.

2000 메시아 연합찬양, 12월 22일 금요일집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애를 송축할 순례의 시간을 향하여

2000년도 성탄절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2000 성탄축하 연합찬양 메시아' 연주회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총현의 모든 찬양대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위하여 그 동안 약 1개월 반 정도의 연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애를 함께 순례하며 그와 연합되는 시간이 되도록 다함께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 ①일시: 12월 22일(금) 오후 7시
- ②장차: 총현 연합 찬양대 600명 내외
- ③연주: 총현 연합 오케스트라 70명 내외
(아면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 ④곡목: '켈렐의 메시아'
(합창 전곡 및 독창곡 일부, 약 2시간 내외)

Joseph In Egypt

(Genesis 41:55-57)

“When all Egypt began to feel the famine, the people cried to Pharaoh for food. Then Pharaoh told all the Egyptians, “Go to Joseph and do what he tells you”

The biblical story of Joseph is very, very interesting. Did you know that it manifests many of the same attributes of Jesus' life? The Old Testament always prophesies about Jesus Christ, and here in today's Bible verses we find Him. God purposefully wanted to raise up the Israelites, so He sent Joseph to Egypt and placed him in a position of authority. “So when all the land of Egypt was famished, the people cried out to Pharaoh for bread; and Pharaoh said to all the Egyptians, ‘Go to Joseph: whatever he says to you, you shall do’” (v. 55). God purposefully wants to save the world, so He sent Jesus Christ to earth and gave Him all authority. Joseph opened all the storehouses to save the people of the earth, “When the famine was spread over all the face of the earth, then Joseph opened all the storehouses, and sold to the Egyptians; and the famine was severe in the land of Egypt. The people of all the earth came to Egypt to buy grain from Joseph, because the famine was severe in all the earth” (vv. 56&57). Jesus opened all of heaven to eternally save the people of the earth. Let's dig deeper into Joseph's opening of the storehouses, and uncover more treasure.

Joseph opened all the storehouses by authority. Pharaoh told the people to “go to Joseph”. Pharaoh's abundance could only be had through Joseph. God gave Jesus all power. Jesus tells us,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Isn't this perfect power? Pharaoh told the people to do whatever Joseph instructed, “whatever he says to you, you shall do”. Jesus tells us, “He who does not honor the Son does not honor the Father who sent Him” (Jn. 5:23). Just as the people of the earth had to obey Pharaoh in order to receive the fruit of his land, you have to obey God so that you can go to the kingdom of God. Pharaoh told the people to obey

Joseph. God tells us to obey His Son, Jesus Christ. In other words, only through Joseph was all the earth given salvation because he alone had total power. The Bible tells us,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has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 (Jn. 3:35). Pharaoh

the one who prepared for the famine, “Thus Joseph stored up grain in great abundance like the sand of the sea, until he stopped measuring it, for it was beyond measure” (Gn. 41:49). In like manner, Jesus is the only one who has prepared and provided for our

He did! He sent Jesus Christ, His grace upon us. If God would have closed the storehouses, then life would have absolutely no meaning. The whole earth was starving, and Joseph opened the doors. He didn't close them. The whole world would die without Jesus, but He opened the gates to heaven for all who believe in Him.

Joseph opened the storehouses to everyone. Whoever came to Him could have grain, “the people of all the earth came to Egypt to buy grain from Joseph” (v. 57). All the people from all the different lands came to Egypt to get food. Jesus said,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Joseph asked the people who came for everything, like money, animals, and property. He bought everything from them. Likewise, Jesus asks us for everything, so that our lives can glorify Him.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God sent Joseph to Egypt. “Now, therefore,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and He has made me a father to Pharaoh and lord of all his household and ruler over all the land of Egypt” (Gn. 45:8). Joseph trusted God and followed His will. He preserved many nations, especially Israel. God sent Jesus Christ from heaven to earth. He gave Him all authority—ruler of heaven and earth! Jesus trusted in His heavenly Father and followed His will. Now, through Him, all the world can be saved. What a blessing! What a gift! Whoever came to Joseph received earthly food for temporary life. Whoever comes to Jesus receives heavenly food for eternal life. The storehouse to heaven is open my friends. The supply is unlimited, but no one knows for how long. For this age of grace comes to an end upon Christ return or your death. Your soul will reach its final destination at either event. Is that destination going to be heaven or hell? The choice is yours. The Gospel,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has been preached to you this day. Amen! 🙏

*Joseph opened the storehouses
to everyone.*

*Whoever came to Him could have grain,
“the people of all the earth came
to Egypt to buy grain from Joseph” (v. 57). All the
people from all the different lands
came to Egypt to get food. Jesus said,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Joseph
asked the people who came
for everything, like money, animals, and property.
He bought everything from them.
Likewise, Jesus asks us for everything, so that our lives
can glorify Him.*

gave Joseph complete power. God gave Jesus Christ complete power.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Jn. 6:35). Jesus is the way, the only way, to eternal salvation.

Joseph was the only one suited to open the storehouses. He had supernatural insight that others recognized, “Then Pharaoh said to his servants, ‘Can we find a man like this, in whom is a divine spirit’” (Gn. 41:38)? Joseph had wisdom! He was

soul's famine, “For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and grace upon grace” (Jn. 1:16). Amen! Indeed, “it was the Father's good pleasure for all the fullness to dwell in Him” (Col. 1:19)!

Joseph actually opened the doors to the storehouses. He didn't have to, and surely a lot of people who promise to do something don't follow through. A lot of religious make promises, but the practice of them doesn't yield any truth. God promised all through the Old Testament to send a Savior, and



김성복 목사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요셉과 예수의 생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동일한 속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발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으며, 그는 권세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5절).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온 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창고를 모두 열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할지어다” (56, 57절).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원히 구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것을 여셨습니다. 요셉의 창고를 개방한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고찰해 봅시다. 그러면 더욱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얻는 구원

요셉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품부함은 오직 요셉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즉시 모든 백성들은 그의 땅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바로에게 순종해야 했으며,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는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직 요셉을 통해서 모든 땅에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요셉 혼자만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

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요 3:35). 바로가 요셉에게 완전한 권세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예수는 영원한 구원의 항구에 이르는 길,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57절). 다른 땅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요셉이 돈과 짐승들, 그리고 재산과 같은 것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받고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모든 것을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유일한 자를 통한 구원

요셉은 창고를 열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교” (창 41:38). 요셉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기근을 위해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량이 없음이었더라” (창 41:49). 이와 같이,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기근을 위해 준비되고, 예비된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

나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 1:16). 아멘!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골 1:19)!

신실한 자를 통한 구원

요셉은 실제로 창고에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하기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질 않았습니다. 많은 면에서 신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57절). 다른 땅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요셉이 돈과 짐승들, 그리고 재산과 같은 것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받고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모든 것을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일시적 양식과 영원한 양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요셉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창 45:8).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많은 국가를 보호하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는 예수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는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신성한 아버지를 신뢰하였고,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지금,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소중한 선물입니까! 누구든지 요셉에게서 이 세상의 일시적 삶을 위한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있었듯이,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영생을 위한 하늘의 양식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창고는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무제한 공급되지만,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은혜의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나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을 지나게 될 때가 되면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한가지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거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 복음이 이 날에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에 대한 대가

갑사와 나날의 추수감사절

국내외국인교부는 11월 19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두 가지 행사를 준비했다.

그 첫 번째 행사는 '추기독인양송대회'였다. 예년의 추수감사절행사가 각 나라의 음식을 준비하여 나누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였던 것을 감안해 이번 추수감사절행사는 영적인 감사절행사를 가지기로 계획하고 추기도문양송대회를 준비하였다.

갑사의 집회를 가진 후 떡과 과일을 나누며 추기도문양송대회가 시작되었다. 자식 산만하거나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던 조지 산만하라는 달리 행사는 진지하고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란, 인도, 필리핀의 9개 국가의 대표들이 앞에 나와 각자의 언어로 추기도문을 암송했다. 각각 다른 소리와 억양으로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한편의 설교처럼 다가왔다. 암송에 참여하는 지체들은 그저 암기하는 것이 아닌 진지한 모습과 기도하는 자세로 앞과 추기도문을 암송하였다. 우리에게는 추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것이 평범하고 작은 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복음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던 분들이 추기도문을 진지하게 암송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열매 중 하나로 보았다. 특히 모슬렘 출신이신 분이 몇 주 동안 준비하셔서 멀리까지 전

지한 목소리로 암송하는 모습은 사뭇 인상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길 얼마나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실까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우리가 다른 민족이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며 각자가 은혜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행사는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였다. 오랜 기간동안 옷이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나누어줄 옷을 구한다는 흥분이 이루어졌고 각 교구와 부서에서 사랑이 담긴 수백 점의 옷들이 모여졌다. 외국 인권로자의 상당수는 환경적, 경제적 여건으로 옷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상대적으로 실외에서 하는 일이 많고 한국의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옷은 큰 걱정일 수 있다.

이러한 이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나누어진 이 옷들은 기본 좋은 위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진열된 옷들을 둘러보며 각 자에게 필요한 옷을 고르고, 서로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들을 찾아주며 훈훈한 웃음의 시간들을 보냈다. 감사절의 나눔의 의미를 충현교회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에 사랑의 옷으로 동참한 많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산교위원장)

원주교도소를 다녀와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1. 11월15일 수능시험을 보는 날 치고는 참 포근했다. 교회배스를 타고 원주교도소로 향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오병총장단이 동행했다. 버스 안에서 오병총장단원들은 연습을 한번이라도 더하느라고 발정연습까지 해가며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고 내심 놀랐다. 아직까지 중장단으로서 초보인 나는 이러한 열심이 너무나 아름다워보였다.

이후 원주교도소로 도착했다. 이이거 오셨어! 다 왔지만 교도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약간은 긴장이 되었다. 우리는 300여명의 수감자들이 모인 강당에 들어갔다. 옷은 모두 같은 색깔로 입었지만 수감자들 하나하나가 더없이 소중한사람이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을 수 있었다. 수감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속에 갇힌 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께 아무런 애기 없이 내 맘대로 교만하고 우물거림이 세상은 사망했다 나,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할 나를 위해 주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용납하시고 참아내셨을까? 주님 용서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버린바 없이 주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생각만으로 했었던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을 전하는 바로 그곳에 분명 주님은 구원의 감동을 허락하시라 믿으며 앞으로의 일생이 귀한 일에 쓰여지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 보았다. 날이 같은 자의 자그마한 헌신이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 분명히 주님은 그곳에 당신의 구원을 허락하시리라.

2.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150:6).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낮고 천한 자리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모든 교정전도사, 지난 11월 15일 원주교도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간간히 철차를 밟은 후 집회장소에 가까이 갈수록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찬양소리를 들었다.

집회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원주교도소 제조자들이 우리를 뜨겁게 맞이하는 찬양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찬양하는 모습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라 임을 언약해 주소서.'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교정전도사)

강남병원전도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얼른 와' 라고 말씀을 안하셔지만 단풍이 곱게 물든 강남병원 뒤뜰을 전도팀원들과 운치있게 걸고 있는 내 걸을 성령 전파하는 노광희 권사님의 발걸음이 나를 계속하였다. 병원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그 색색한 노광희 권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그래, 오늘 온다고 했으니 오늘 밤1시부터 4시까지 같이 기도하자." 무슨 기도를 받게며 하시는지, 급급한 마음에 여쭙보았더니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고 하셨다. 그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남병원전도팀이 찾아간 곳은 조지전 성도의 병실이다. 그는 '크로이츠 헬트 아름' 병으로 이제는 뇌에 구멍이 뚫려 뇌신경병의 상태이다. 지난번에 '주 간송헌'에 그의 아내의 간증이 실렸던 환자이다. 조지전 성도의 병으로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 들이는 계기가 되어 그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강남병원 팀이 힘있게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다.

강남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그래서 이 병원은 일반병원과는 다른 환자들도 있다. 무의탁환자, 마조노, 치매노인 등. 전도팀을 따라 4층의 무의탁 환자들 병실을 방문했다. 그들의 이름이 모두 '불쌍'으로 시작되었는데 '불쌍'이라는 '쌍'은 무의탁한

자들에게 붙여진다고 한다. 그중 중국 심양에서 오신 불쌍태원 할아버지는 60년전에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살다가 지금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 오셨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 여비를 벌기 위해 취직한 강장이 주일날에 도 일을 해 교회에 갈 수 없었다고, 그런데도 녹방에 걸려 입원하니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감사하셨다. "제가 가르쳐드린 찬양이제 혼자 부르실 수 있으세요"라고 묻자 그분은 "아! 혼자 부르려고만, 잘 안돼요" 하신다. 그분을 대하는 집사님의 모습은 마치 높고 약해진 부모를 대하듯 다정하다. 그 옆에 계신 환자에게 불쌍태원 할아버지가 퇴원해서 중국에 가시기 전 꼭 찬양 세 곡을 함께 부르며 가르쳐 드릴 것을 당부하셨다. 그렇게 강남병원 전도팀은 때론 누이처럼 때론 아버지처럼, '불쌍'의 성을 가진 무의탁환자들에게 가족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만나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더니 간경화에 의한 무의탁 환자였던 환자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그분은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읽을 수가 없다고 하기에 돌보기를 사다 드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이 '나 한테도 이런 것을 가져다 주세요?'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더니 거품을 못하는 다른 환자에게 찾아가 외운 사도신경과 추기도문을 들려 주며 돌보아 주신 분. 그분은 영접기도를 드린 후 주님께 감사하기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 그분들에게는 환자들 한사람 한사람을 가족과 같다. 한주일에 약보민 사람은 건넌 없고 빈 침상만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셨으면 감사하자 아니면 더욱 감사에 이르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주어진 기회처럼 복음을 전하신다는 그분들의 모습과 손길이 정말 귀해 보였다.

(영접집사)

눈물과 감사의 고3 생활

장 정은 (고등부)

저의 고3 생활은 실패와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저의 다짐이나 결심은 인간이 했던 결심이었던 게 말뿐일 때가 많았고 제 힘으로 하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넘어져 있는 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실패 속에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제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수능 시험이 한달도 남지 않았던 어느날 공부해 해야했는데 자꾸 다른 생각만 나고 공부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습시간에 친구를 통해 주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감사라도 두들기웠던 저의 부족함을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고3 생활은 저의 부족함과 계음을 발견하는 시기였을 때 동시에 새로운 저

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함께해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험이 끝났고 사실 점수는 만족할 만큼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보다 감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아픔에 귀기울이실 주님... 그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근민이를 위한 기도

홍승연 (고등부)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보세요?”

“응... 나 대신인데 근민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왜? 어디가 아픈데?”

“다리에 톱이 나서 수술하게 됐나봐”

항상 건강만 모습으로 만났던 근민이가 입원을 하더니... 그러나 수술만 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꺼란 말에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하지만 주일날, 방송부원들을 만나고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땐, ‘절망...’ 하는 생각과 함께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근민이 왼쪽 다리에 예전부터 작은 톱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놔뒀다가 많이 위었다는 것이다. 골육종이라는...

주여 지난 주까지만 해도 엉뚱한 농담 하나로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곤 했던 근민이가 아프다니요. 항상 집회 시간에 중앙카메라를 걸던 근민이가 아프다니요. 믿을 수 없었어. 순간 방송부의 분위기는 어두워졌고, 모두 이 갑작

스런 얘기와 소식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저는 근민이를 찾아간 날, 근민이는 청소와 같이 옷은 얼얼로 우리를 만겨 주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한복복을 입고 걸어나고 뛰다니며 걱정을 하며 병원을 찾았을 우리에게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병원은 암 전문 병원이라서 그곳의 모든 환자들은 머리를 깎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근민이도 함께 아파하며 머리를 깎고 힘든 병과 싸울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근민이는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근민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은 고등부 학생들과 여러 친구들이 다 나가며 근민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 7개월을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얼마 후에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 시간을 통해 근민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어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우리 선교부에는 꿈이 있어요

김용현 (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제 2교육관 3층으로 가면 시끌시끌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곳은 바로 고등부 땅끝까지 선교부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땅끝까지 선교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부는 조국자전도사님과 한혜성 선생님이 담당하시고요. 인원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다 합치면 한 50명은 될거예요. 하는 일은 당연히 선교부니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노병정선, 봉사

활동 같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12월에 있을 코이노니아만 준비에 바빠요.

이제 우리 선교부에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고등부 집회가 끝나면 12시 30분까지 제2교육관 3층 선교부 방으로 모여요. 그리고 먼저 조국자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회의 내용이 있을 때는 회의를 하고 요즈음처럼 행사 준비가 있을 때는 준비를 하고요. 특강이 있을 때는 특강을 듣고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친교를 하는데요. 선교부는 일이 없을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시계를 보면 2시 30분이에요.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5부예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던 일이 다 안 끝났을 때에는 5부예배 후에 다시 모입니다. 이러다 보

면 하루 해가 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선교부에 하루 일과표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선교부는 꿈이 많은 부서예요. 꿈은 각자마다 모두 틀리지만 꿈의 마지막 종착역은 선교로 끝나요. 의사에서 선교하겠다는 사람,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선교하겠다는 사람, 음악을 해서 선교하겠다는 사람 등을 너무나 다양한 꿈들이 있어요. 전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니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 선교부는 20년 뒤에는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들거예요. 왜냐하면 모두들 자기 자신의 전공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못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교하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눈을 감고 20년 뒤를 생각하니 너무나 즐거워요. 난 내가 20년 뒤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이루어 질 수 있게 그리고 한 명의 나 오자도 없게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선

교부에 피어나고 있는 많은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수 1:6).

우선순위

정단비 (고등부)

포맽이는 요새 하고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도 많이 그리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스노우보드도 타고 싶고... 약기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도 해야겠지.

하지만 포맽이는 제일 해야하고, 하고 싶어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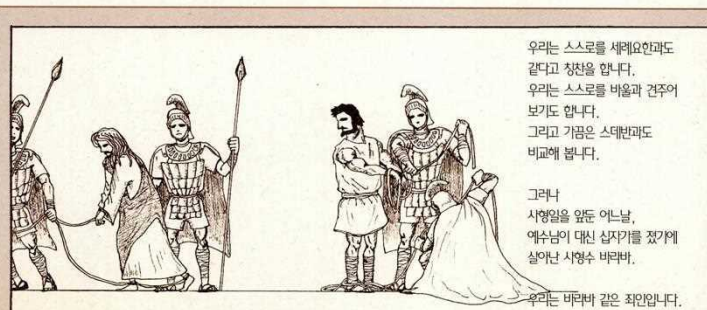
공부도, 그럼도, 게임도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해야하는 것, 그 시간을 기다리고 행복해 해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얻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어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포맽이는 이제부터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정하고 실행시키려고 해요. 어려본도 기도와 성경을 제일 하고 싶은 것으로 정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하루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떻게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세요?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같이해요.

만평

글·그림/김범



우리는 스스로를 세계요한과도 같다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벨과 견주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스테판과도 비교해 봅니다.

그러나

사행일을 앞둔 어느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찢기에 살아난 사형수 바리새.

우리는 바리새 같은 자입니다.

병실에서

놓을 수 없는 소리들

고길중 (5교구)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다녔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런데 작년 7월경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것이 올 8월에 재발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졌다. 갑자기 열구리가 아파오더니 기운을 못 차리고 먹지 못하며 염증을 일으켰다. 처음엔 강남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치료가 힘들다며 부담스러워서 소견서를 써서 영동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다.

지금도 어머니가 기쁨을 못하고 계신다. 어찌해야 하나... 내가 빨리 일어나야 할텐데... 빨리 일어나서 다시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가야 할텐데...

어기 저기서 기적의 소리가 들려온다. 불치의 병에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향문이 막힌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소리들을 듣는다. 소변에 덩어리 찌꺼기가 나오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소리들을 들으며 애쓴다. 배가 땀 뻘뻘하고 답답하고 호흡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기적의 소리들 그 희망의 소리들을 놓지 않았다. 기쁨을 보낸서는 소스라칠 정도로 얼굴이 노랗게졌다. 황달,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아무리 황달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지키고, 난 그 기적의 소리를 놓지 않는다. 내 몸 속과 함께 들어온 호수를 통해 빨간 점이 흘러나온다. 담에서 나는 좁. '하나님 보이십니까. 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고 절 위해 기도해 주시는 충헌의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일으키소서 그리고 내 어머니를 하나님 전 안으로 이끌 힘을 제게 주소서.'

하나님께 한영혼을 인도하는 일의 귀한 사명

황선혜 (집사, 6교구)



다. 나는 회경 언마의 손을 꼭꼭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

최금옥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최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7)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도 병그레 웃으시는 것 같았다. 참 기뻐다. 최금옥 성도가 직접 찾아와서 먼저 교회에 가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은혜가 아니겠는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음에 기쁜 마음뿐이었다.

전도는 쉬운 일이기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보람된 일 중의 하나이다. 천국을 소유한 네 영혼의 기쁨을 누구에게나 나누고 싶은 내 마음은 예수님과 그의 만물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기쁨을 느낀다.

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며 교회에 잘 다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위덩어리보다 더 굳어져서 들으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모른다.

어느날 구역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떤 여자분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저는 이 아파트 바로 위에 사는 회경 언마예요. 이사온지 3개월이 넘었어요. 현관문에 충헌교회에 다니신다고 표패가 붙어 있어서요. 저도 교회에 가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교회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아무런 미신이나 우상숭배도 없는 듯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은 예수님을 잘 받을 것 같았다. 그 다음 주일날 남편과 함께 회경 언마를 데리고 교회에 갔다. 회경 언마는 손을 모으면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렸다. 그날은 마침 정월이었던. '저진 뒤에요?' 하고 물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아시죠?' '예' '그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하여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지만, 앞으로 교회에 꼭 나오겠다고 했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이었다. 꼭 나오겠다고 등록하지 한 후, 교회에 나가라고 하니가 시아바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또 다음은 강남의 4층짜리 건물 지하에 물이 들어 차서 여러가지 손해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교회에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겼단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을까. 나는 참 난감했다. 무어라고 그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를... 나는 기도했다. '최금옥 씨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교회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나는 믿는다.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리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이다. 귀한 주님의 딸이 되리라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구역탐방

돈... 돈... 돈...

10교구 쌍문 2구역
구역장 오은경 집사

기복 신앙과 복음주의의 사이에서 가장 구체적인 갈등이 '돈'에 있다. '돈'이 복음주의의 바람이 불고 강요가 되어도 우리네 삶은 살아가게 해주는 듯 보이는 것이 돈인걸... 말로는 기복신앙을 타파하고 복음주의를 부르짖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에 우리의 복음이 무너지고 있는가! 복음주의의 운운하다가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돈 달라는 얘기다. 성도님들이 돈 있게 해 주시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들고 찾아올 때면 난감함에 주제를 못한다. 어떤 상황을 종종 당해본 터라 이번 구역탐방은 직접히 실시했다. 주제가 '부와 사회적 지위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이었다. 쌍문 2구역은 과연 돈을 버리고 복음의 깃발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 혹 기사를 버려야 하는 세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충헌의 만다'를 펴들었다.



먼저 강영옥 집사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너무 세상 물질과 사건들에 연연하지 않느냐며 반문과 동시에 서로간의 책망을 하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너무 강하고 직접적인 책망이어서 내심 시립법은 성도가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구역원들이 한 명, 한 명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반성을 하기도, 동조를 하기도, 기도

문 2구역은 세상에 참으로 많이도 당하고 살았다. 어떤 성도님들은 같은 크리스천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남을 돕다가 도와준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아마도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살다보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리라. 그래도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걱정했다. 구역원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했다. 특히나 장영순 권사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사람이 돈이 없을 때 '어쩌나' 하고 걱정은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어쩌나' 하는 절박함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위로 위에 권고와 더 기도할 것까지 말씀하셨다.

말씀을 마치고 나눔 속에서 은혜로웠던 것은 정선희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내보낸 때마다 기도하고 내보낸다는 것이다. 그 아이들 역시 그리고 충헌의 모든 아이들 역시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의 담 위에 부와 지위를 쌓아가길 기도한다.

(권오섭 기자)

+ 양오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욕시 죄를 범하였을 자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약 5:15)

5교구 김재수 집사님 앞으로 강남시립병원에서 치료 하시다가 현재 잠시 집에서 휴식중입니다. 곧 다시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7교구 원경희 성도님 난소암으로 중앙병원의 서관 51병동에서 치료중입니다. 계속 함양 치료 하시다가 1월 중순 지나서 수술 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3교구 조덕진 성도님 크로이츠 캠프 병으로 강남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뇌에 구멍이 계속 생기는 병으로 치료받도 약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 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고 했습니다. 기도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의 든든한 보듬

조수연 (영아부 노태연 엄마)



"엄마! 불끄지 마세요...무섭단 말이에요"

"뭐가 무서워?"

"응...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그래... 우리가 불을 끄지 않으면 밤의 불을 켜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위해 달님, 별님, 그리고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단다. 자! 우리 십자가가 몇 개나 있나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열 아홉, 스물... 와! 정말 많지! 어두운 길 걸어야 하는 까닭에 불을 켜놓아야 맘을 놓는 아이를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를 세는 거다. 도시에겐 가장 흔한 십자가... 그러나 아이에게는 가장 남남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든든한 존재다."

충현교회 영아부 2년차. 이제 내년이면 유아부에 올라갈 우리 아들 태연이는 유난히 십자가를 좋아한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 찾기를 즐겨 한다. 동화책이나 TV, 자갈천 전단 속에서도 아이는 십자가를 골라낸다.

"엄마! 십자가여! 여기도... 여기도...엄마! 십자가가 많아!"

제 맘에도 대단한 듯 십자가를 가리키는 아이를 보며 나는 참 행복하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채 산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그리고 이러한 행복을 맛보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충현교회 영아부

편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교회와 영아부에 좀 넓은 장소를 할애해 신혼가정부의 예비 엄마, 아빠들부터 영아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권했으면 좋겠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영아부를 낳거나 키우기 위한 비법을 찾아다닌다. 심지어는 제2외국이나 예능교육조차도 조기교육이 성패를 가늠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에는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지. 아기 때부터 찬송과 기도, 말씀 등 통한 건전의 훈련이아말로 사탄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꼭 들어줘야 할 가장 든든한 보듬이 아닐까.

나를바꾼 한마디

주께서 준비하신 길...

배유나 (대학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여러кратно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13)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어왔었지만 적극적이지 못했고, 또한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었는지도 지금으로서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 교회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전선연 선생님께서로부터 조금만 복사용지에 복사가 되어진 이 요절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새부터인가 이 요절을 회고구 다하게 되었다. 길을 걷거나 잠이 들기 전이나, 아침에 같이 깨었을 때, 그 어느 때라도 나는 이 요절을 암송했고, 학교 전학문제로 고민을 해야 했을 때도 나는 이 요절을 암송하며 주께서 보여주는 길을 보게 달라며 기도를 아곤 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지금도 누군가 나에게 입들어야 하는 그들의 생활을 함께 나누길 원할 때면 이 요절을 들려주며, 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일종의 하나이며 피할 길을 또한 준비하셨을 것이라며 웃으며 이야기하곤 한다.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또한 이 요절로써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기도한다...

그 역시 주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계획 중의 하나이길 바라면서...

진리의 새

'사무엘(Samuel)'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사무엘'을 읽으실 때, 사울의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지 알아볼까요? 그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으로서의 사역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기가 많아서 다뤘고 결별하고 죽어가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사울은 성급하고(삼상13:5-14), 충동적이며(삼상14:24-45), 온전치 순종하지 않고(삼상15:1-23), 자기를 합리화시키며(삼상15:15,20,21), 결국 자살로 끝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삼상31:1-6)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그가 실패로 끝을 맺는 이유들을 사울 자신에게서 찾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뤘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기를 가지고 읽으셔야 하겠지만, 다음으로 '사무엘'을 읽으실 때는 특별히 그의 문제를 통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범죄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살펴보시면서 읽으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른 것은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으나,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의 생활 양식을 접하며 살아야 했지요, 한 가지는 용서의 기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죄로 인해 치러야 할 고통입니다(삼상12:10-14). 삼상 51년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의 열매를 함께 짊어주어야 하는 고통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지른 실제적인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짓셨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옥고를 치르거나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서 사울이 신실하고 죄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에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다윗 역시 범죄해 다른 이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연약한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고 죄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신 영감한 왕이신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사무엘서를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정당한 왕으로 모시는 고백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김동하 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언뜻 서처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작고 귀한 말구요'

외신부(외국인 근로자 선교부)에서는 가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도를 한다. 지난 11월 18일에도 외신부 교사와 단기 평신도선교사 후보생들이 모여 지역별 나라별 전도를 했다. 인도네시아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나도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아시는 다른 집사님과 함께 성수동을 향해 출발하였다. 토요일 오후인지라 멀리 광주나 의정부로 가거나 너무 늦을 것 같아서이다. 성수동에 있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먼저 심방을 했는데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은 저녁 7시가 되어야 끝난다.

7시가 되자, 작업복 차림의 친구들이 하나씩 숙소로 모이기 시작했다.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그들의 거부감없는 얼굴. 요즘 교회에서 안 보이던 친구들도 같이 활유를 한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말로는 성수동엔 방글라데시나 몽골 사람들이 많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구로구에 있는 가리봉역 근처에 많다는 것이다. 전도자를 쫓겨 가리봉역을 향해 출발하였다. 성수동에서 창제동을 지나 남부순환도로에 진입하는데 토요일 오후인지라 가는 길마다 차량이 가득해 더욱 가고 있어 신랄동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아주 맛있다고 하는 볶음밥과 짜장면으로 거기서 허기를 채우고, 다시 도로에 들어섰는데 운전하시는 집사님께서 길을 잘 모르셔서 구로공단 주변을 다다뽀리 제바라 돌듯 헤매게 되었다. 어두운 봉화각 안에 저무함이 감동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돌아보니 급기야 주부차림이 좋았다. 흰옷을 마치고 설도 없이 전도를 위해 길을 나섰으니 고만다 할 땐, 졸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썩 웃으며 자제를 고치지 않는다. 10시가 넘어서야 가리봉역에 겨우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외국인들이 모두 인도네시아인임을 아는 순간, 물에서 물고기를 발견한 기쁨을 느꼈다. 모두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전도자를 가까이서 시작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입고있는 가벼운 옷차림에 초조함의 날씨는 너무 추웠다. 얼굴이 발강도중 전도자를 내어주는 모습이 대단하게 하고 안쓰러워 기도 하다. 전도를 마치고 밤 11시, 내가 가는 가마에 내리 대리게 되는데 "뜨리까 까쉬(감사합니다)"라고 그들에게서 외치길 활짝 웃으며 좋아한다. 참 기쁜데... 내 길을 더 가야 겨우 쉬 수 있는 텐데... 그들이 몸을 누일 허름한 방이 떠오른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말로유가 떠오른다.

(이명희 기자)

